

전 교회와 중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며
행복한 가정 · 건강한 교회 ·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성시

창간 1998년 9월 15일
2019. 5. vol. 231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춘천교계 소식
을 빠르고 생생하게
보실수있습니다.

기사내용 미리보기

- 01 성시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
- 02 특집1
가정의 달
- 03 특집2
호국보훈의 달
- 04 선교
나는 사람을 세우는 건축가다
- 05 기획
강원도 3.1운동과 그리스도인
- 06 다음세대
전도사관학교
- 07 통일
영광을 보리라
- 08 건강칼럼/영화
- 09 잠깐
강원지역 이단세미나
- 10 교계소식
- 11 행사안내
- 12 후원자명단



후원참여하기

1달에 1번
커피 한잔의
후원이면
충분합니다.

신협 131-005-937566
농협 172242-51-085114
예금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광고주를
모십니다



문의033.256.126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발행인 이사장 박인관
부이사장 이수형
춘천기독교연합회장 김종익
발행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120 302호
T033-256-1260 F033-257-1260
E-mail: holycc1972@daum.net

성시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세우신 두 기관은 가정과 교회이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 창조의 절정에 가정이 탄생했고, 가정의 탄생으로 창조가 완성되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값을 지불하셔서 친히 세우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 중요한 가정과 교회를 악한 사단은 가만히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고 파괴하기 위해 가진 공작을 다 펼치고 있다. 그래서 요즘 가정과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아파하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데 주력해야 한다. 건강한 교회가 행복한 가정을 세워 줄 수 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축이 된다. 가정과 교회는 결코 분리될 수 없고 공동의 운명체이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한다. Happy Family를 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Kingdom family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건강한 교회를 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Kingdom family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건강한 교회를 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Kingdom Church를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의 공통점을 누가복음 1, 2장을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도이다. 제사장 사가랴의 가정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한 의인의 가정이었지만 자식이 없어 늙어갔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눅1:13)고 말씀하심으로 이 부부가 오랜 시간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기도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다. 가정이든 교회든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기도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 끊임없는 기도로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빛어지고, 시대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

두 번째는 말씀이다. 예수님을 잉태한 갈릴리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는 세련되고 미모가 좋은 도시 여인들과 다른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눅1:37)는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말씀대로” (눅1:38) 이뤄지길 고백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가정이나 교



회를 통해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말씀에 불순종하여 에덴동산의 가정이 무너졌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교회가 힘을 잃는다.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주의 역사를 볼 것이다.

세 번째는 찬양이다. 엘리사벳을 찾아간 마리아는 엘리사벳으로부터 놀라운 소리를 듣고 즉시 찬양한다. 아들을 낳고 입이 풀린 사가랴 제사장도 찬양한다. 찬양은 비천한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터져 나온다. 찬양하다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찬양을 하게 된다. 찬양이 넘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며 Kingdom Family이며,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 Kingdom Church이다.

이런 Kingdom Family, Kingdom Church의 축복은 자녀들이 강하게 자란다는 것이다. 요한은 강한 심령의 사람으로 자라서 초림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다. 마찬가지로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강한 심령의 자녀들로 자라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녀들이 될 것이다. 춘천 도성에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들이 더 많이 생겨서 이 도시에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다음 세대들을 통해 일어나길 소망한다.

글. 이병철 목사
(주향교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부본부장)

5월은 가정의 달! 오래전부터 제정된 아름다운 이름이다

창세기 1장에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동시에 결혼제도를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창1:27-29a)” 라고 가정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시며 명령하셨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창조주의 축복을 망가뜨리기 위해 일하고 있다.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 가정 제도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모양으로 공격하고 있다. 음란물, 동성애, 결혼 기피, 이혼율 급증에 결혼이라는 신종 용어까지 등장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더욱이 뱃속에 자기 자녀를 죽이는 낙태 살인이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합법화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은 속고 속이고 또 속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산아제한이라는 실책을 저질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도 세계에 흩어져 있다. 모이면 교회를 세우고 선교에 열심이다. 부지런하고 빠르고 머리가 좋아서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만약 하나님의 법칙대로 자녀를 많이 낳았으면 대한민국의 국위는 훨씬 높아져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격은 겉모양만 위장한 사탄의 치열한 공격이며 음모이며 전략이다. 아쉬운 것은 아무리 나라가 둘만 낳아라, 하나만 낳아라 해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선포했다면 적어도 성도들의 가정에서는 셋째, 넷째를 낳았을 것이다. 교회는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 지금도 교회는 낙태는 살인이라고 선포해야 한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됨). 가정의 달에 귀한 명언이 아닌가 되새겨본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는 기관이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우

리네 인생에 감사하고 아름다운 삶의 기본 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가정이 화목하려면 가정은 무엇보다 부부가 먼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녀가 가정의 우선이 되면 역기능 가정이 되기 쉽다. 따라서 자녀를 진정 사랑한다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 반면에 엄마, 아빠가 서로 다투고 불화하면 자녀는 불안감 가운데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진정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엄마는 아빠를 세워 주고, 아빠는 엄마를 아끼면서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요즘같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다음 세대, 차세대, 자녀 세대로 일컫는 세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지식을 전수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경적이며, 창조적 질서의 인간 됨과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의 형성과 정립을 세워가는 일에 가정과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는 시대의 흐름에 쫓려 다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할 것이다. 사실 세상에는 우리 자녀를 멸망시키려는 세상의 공격, 즉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경각해야 한다. 자녀의 한 영혼을 놓고도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세상의 가치관, 매스미디어, 문화, 인터넷의 세계, 심지어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 자녀들을 파멸시키려는 악한 영들의 모략이 들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명심할 것은 신앙 교육을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학교 공부보다, 세상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녀의 신앙이다. 이 말은 형식적 종교심을 심어 주라는 것이 아니다. 습관적인 교회 출석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넣어 주어야 한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성경적 가치관을 자녀

의 영혼에 먼저 심어 주어야 한다. 거듭 말하자면,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으로 자녀의 영혼이 선점되기 전에, 영원한 가치관인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면 어떤 악과 유혹이 자녀를 공격해도 염려할 것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자녀의 마음속에 심어주기만 하면 자녀는 결코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인생을 값지게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하는 교육 프로그램, 연장교육과 통합교육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이원론적인 신앙과 삶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다. 연합과 통합 시스템의 구축은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데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하나 됨의 가정 세우기, 자녀 세우기, 다음 세대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여 함께 달려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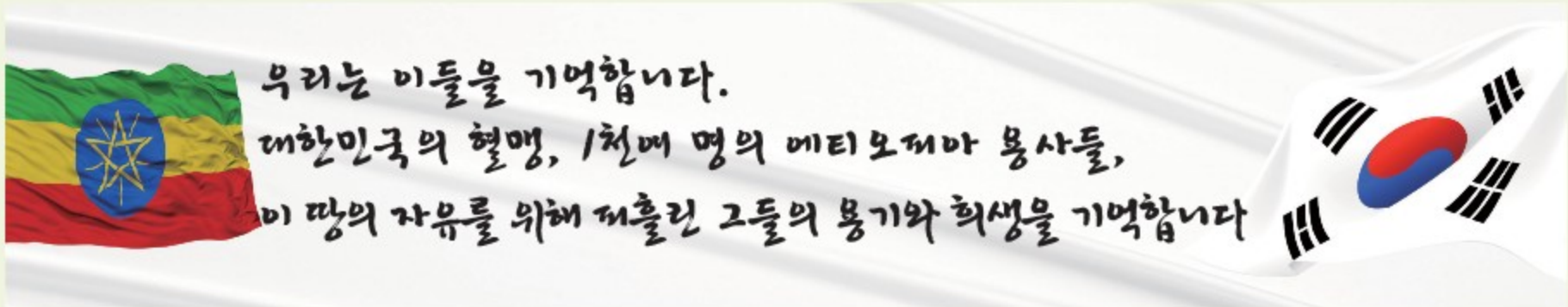
성경을 기초로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기독교 문화를 개발하고 가정과 자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가정, 말씀 앞으로 다가오는 자녀들, 말씀 앞으로 엮어드리는 부모 세대가 힘을 합할 때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 나라의 앞날에 소망의 배를 함께 띄울 수 있으리라 믿는다.

가정의 달 5월!

한 달 만의 행사가 아니라, 한 달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주 예수의 강림하시는 날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가정 같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꿈을 꾸고 싶다.

글. 이기복 교수

(한동대, 햇빛트리니티 신학대학원교수 역임,
성경적 부모교실 저자)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공산군이 남북 군사 분계선이었던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하였다.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는 한국전에 병력 및 여타 지원 관련 유엔 결의를 했다. 유엔 결의에 반응하여 UN 국으로 참전한 전투 지원 16개국은 “미국, 영국, 터키, 캐나다,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콜롬비아, 그리스, 태국, 에티오피아, 필리핀,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고, 의료 지원 5개국은 “노르웨이,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 스웨덴” 이다.

에티오피아는 참전국 중 하나였다.

춘천 공지천에 있는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관에는 에티오피아군의 한국전쟁 참전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일찍이 에티오피아는 외세의 침략을 무찌르기 위해 국제연맹에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무위로 끝난 쓰라린 역사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으로 에티오피아로 하여금 강력한 집단행동으로 세계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에티오피아는 부유한 국가가 아니었지만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는 UN의 대의에 따라 파병을 결정하였다” .

1만 4,500km를 돌아 파병된 에티오피아 황실 근위대 강능부대

지상군을 파병한 에티오피아는 1951년 5월 6일 한국에 도착한 이후로 1965년 4월 1일 철군할 때까지 평균 병력 1,200여 명 규모의 1개 보병 대대를 1년 단위로 교체 참가시켜 총 6,037명을 파병하였다. 이들은 에티오피아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 명을 받고 1만 4,500km를 돌아 한국에 파병된 에티오피아 황실 근위대 강능(초전박살이라는 뜻)부대였다. 강능부대는 이후 양구 화천 철원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면서 253번의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모두 승리하는 활약을 펼쳤다. 전쟁 내내 포로가

한 명도 없는 진기록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전사자 121명, 부상자 536명, 총 657명의 군인이 미지의 나라에서 피를 흘렸다. 에티오피아는 적십자 소속의 간호 요원도 파견하였다. 특히 전쟁이 한창이었던 1953년에는 동두천에 보화고아원을 설립하여 전쟁으로 생긴 한국인 고아들을 보살피기도 했다. 휴전 이후에도 각종 의료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전후 복구 사업에 이바지했다.

253번의 치열한 전투와 전승

전후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으로 거듭났고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타 UN 국가들의 도움을 바탕으로 세계 속에 당당히 우뚝 설 수 있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빠르게 일어나 눈부시게 발전해 온 대한민국 그 영광의 시간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생명을 바친 타국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런 대가 없이 머나먼 이 국 땅에서 자유수호를 위해 목숨을 건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 춘천 공지천에 있는 에티오피아 기념관에 가면 “전쟁 중에 하늘에서 열음이 내려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네 나라를 위해 싸웠다는 것이 날 기쁘게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우리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함께 묻히고 싶습니다.” 라는 노장의 참전용사들 이야기를 보고 들을 수 있다.

공산주의 정권으로 인해 참전용사들 핍박당함

에티오피아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다.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는 1963년 12월 23일에 수교하였다. 수교 이전인 1950년 한반도에서 일어난 한국 전쟁에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 연방과 함께 더불어 전투 병력을 파견하였다. 에티오피아 전투 병력은 황제의 친위대로서 한국 전쟁에서 최

정에 군인에 걸맞은 전투 성과를 내고 명예롭게 귀국하였다. 이에 셀라시오 황제는 직접 그들의 전공을 치하하였다. 이후, 1974년에 입헌 군주제가 폐지되었는데 멩기스투 공산주의 정권은 황제를 살해하고 암매장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들은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한 공산주의 체제를 표방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 공산정권은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을 핍박하였으며 많은 참전 용사들이 죽고 다쳐 고국을 등질 수밖에 없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는 불안정한 국내 사정(내전)으로 불참하였다. 1991년에 옛 동유럽 공산주의 정권들의 붕괴와 남북동시 유엔 가입, 멩기스투 공산주의 정권 종식과 멜레스 제나위 총리의 집권으로 대한민국의 관계를 개선되었다.

2004년 5월 춘천시와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 자매결연

에티오피아는 900여 차례 외침을 막아내면서 3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독립국가로 아프리카의 뿔에 위치해있다. 전체 인구 8천여만 명의 8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국가 부가가치 46%를 농업에서 얻고 있다. 아프리카는 커피 원산지이며 최대 생산국이다. 에티오피아고원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문명 중 이집트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고유한 문자와 국가체제를 유지해 왔다. 지금은 아프리카 연합, UN 아프리카 경제위원회 및 108개 국가의 상주 공간이 있는 외교 국가이다. 1968년 춘천 공지천에 세워진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탑 건립을 계기로 다시 싹튼 대한민국과 에티오피아 교류를 통해 정부 차원을 교류를 넘어 민간교류까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또한 2004년 5월 춘천시와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 자매결연을 체결되어 유지되고 있다.

취재. 이은정 사무국장

나는 사람을 세우는 건축가다



나는 사람을 세우는 건축가다(고전 3:10,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 4:19.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전 3:9). 그러나 가끔 건물을 지으려고 국내 국외로 다니는 경우가 있다. 선교지로 러시아 모스크바 근교의 어느 예배당을, 일본 삿포르 지역에 있는 어느 예배당, 인도 비하루주의 어느 선교센터, 중국 연태의 농민 센터 등등. 이번엔 필리핀 수빅지역의 모 예배당과 클락 지역의 선교센터를 지으러 갔다. 함께하는 분으로는 전기의 황석호 안수집사(새로남교회), 음향에 충남 홍성의 이준규 형제와 서울의 홍성도 형제, 조명에는 서울 패스커뮤니티교회의 청년 차성호 현사랑 형제, 아이따 청소년들의 캠프 식사를 위해서 춘천 새로남교회 김영애 김정희 권사 목공으로 나 이렇게 한 팀을 이루었다. 팀은 처음부터 기획이 된 것이 아니었고 이 일을 위해 자원한 자들이 보조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이다.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준규 형제의 페이스북 글에는 첫날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새벽에 도착 후 2시간 취침 후 밖을 나오니 클락의 하늘은 맑음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수빅크지역 근처 잠발레스교회 시공 현장으로 가기 위해 차에 한가득 짐을 싣고 선교센터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가는 길이 어찌나 험난하던지 선교센터에서 차로 3시간을 달려간 곳~~ 길이 비포장도로로 1시간을 달려서 잠발레스교회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하여보니 12시~~ ..”

10박 11일 중 2, 3일 빼놓고는 매일 2, 3시간 정도의 잠을 자고 일한 것 같다. 나는 좀 여유가 있어 더

잘 수 있었다. 귀국하는 날 밤 춘천에서 목회 은퇴 후 선교사로 섬기시는 지인 목사님이 저녁을 함께 하고 싶다고 했지만, 일이 마무리가 안 되어 저녁까지 일을 하는 바람에 식사를 함께 하지 못했다. 선교지는 할 일이 정말 많다. 선교지로 시간을 내어 봉사해 보라고 추천하고 싶다.

앞서 말한 잠발레스의 교회(산 라파엘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같은 마을에 교회당이 있는데도 그 교회의 성도들이 아이따족(아프리카에서 필리핀으로 이주 해 온 흑인(NEGRITO) 원주민으로, 현재 필리핀의 '보톨란'(BOTOLAN/삼발레스주)을 비롯한 루손지역 일대의 산악지역에 공동체를 이루어 거주하고 있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기로 한 아이따족은 선교사님에게 예배당 건축을 요청했고 한국의 어느 교회의 후원으로 예배당을 짓게 된 것이다.

우리는 마무리 공사로 전기와 도색 음향과 간판 그리고 십자가 제작을 하였다. 아이따족, 선교사, 후원 교회, 건축가 이렇게 우리 함께 입당예배와 함께 15쌍 합동결혼식(필리핀은 제도상, 주례 면허증을 소유한 주례자에 의한 정식 결혼식을 하지 않으면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다. 혼인 신고 없이 낳은 아이는 호적을 만들 수도 없고 호적 없는 아이는 교육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다. 정식 결혼식을 못 올리는 이유는 결혼식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서이다)을 가졌다. 가정과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일이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우리가 한 몸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기 그지없다(엨

2:18-22). 또한 나를 사람을 세우는 건축가로 보지 않는, 보이지 않은 나에 대하여도 아프다.

탈락, 카파스의 선교센터에서는 3일 일정의 37개 아이따 교회 청소년 리더들 250명이 참가하는 청소년 캠프와 1,500여 명의 청소년 복음화 집회가 있었다. 이 일을 위해 몇 개의 화장실을 만드느라 현지 인부들이 고용되었고(마지막 날 화장실을 보니 변으로 막혀 온통 냄새로 진동을 했다. 아이따족 일꾼들에게 뚫으라고 시켰지만 하지 않았다. 결국 두 권사님이 직접 푸고 또 우리는 맨 손으로 변을 만저가며 뚫으려 했고, 밖으로 나온 배관에 매달려 변을 뒤집어쓰며 뚫었다. 배관에 시멘트 슬러쉬가 들어가 굳어버려 변이 막힌 것이다. 이 일은 우리 팀의 흔적이 되었다), 우리 그들의 숙소를 위해 칸막이 공사, 전기 공사를, 청소년 컴퓨터 교육 센터를 위해 테이블들을, 캠프와 집회를 위해 옥내 옥외로 전기, 음향, 조명, 그리고 식사 봉사를 차질 없이 해 내어야 했다. 그리고 해 냈다. 매일 38도 이상의 고온의 더위에 땀을 흘려야 했고, 현장에선 오전 오후 있는 참도 없었지만, 우물이 고장이 나 씻지 못하는 날도 있었는데 우리만 아니라 청소년 캠프를 섬기러 온 한국의 60여 명의 성도들은 왜 거저말 없이 불평이 없었을까? 조명으로 수고한 차성호 현사랑은 20대 초와 고 3이다. 학교를 빠지면 서도 봉사하러 이곳까지 온 이유는 무엇일까? 우물이 고장이 났다고 한국의 아는 지인에게 전화를 하며 밤새 우물결에서 내 일처럼 염려하는 안수집사님은 왜 일까? 주님이신 예수님이시다.

글. 이영규 목사

(신복성결교회, 자비량 선교사, 춘천성시 편집위원)

3·1독립운동 100주년 특별 기획 시리즈 ③

강원도 3·1운동과 그리스도인

강원지역의 3·1만세운동

강원지역의 3·1독립운동은 1919년 3월 10일 철원에서부터 시작되어 5월 9일 양양에서 끝나게 된다. 당시 강원도 지역이었던 평강을 통해 독립선언서가 전해지긴 하였으나 배포하는 과정에서 배포자들이 대거 체포되어 4월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만세운동을 하였다. 1919년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을 때 강원도에도 21개군(평강·철원·이천·김화·회양·화천·양구·인제·춘천·홍천·횡성·원주·영월·평창·정선·통천·간성·양양·강릉·삼척·울진)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규모로 보아서는 철원군, 화천군, 홍천군, 횡성군, 통천군, 양양군에서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참여가 있었다.

강원도의 경우 3·1독립운동을 촉발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종교인의 활동이 컸다. 천도교와 기독교의 활동이 중심이었다. 강원도 내에서 종교 간에 공동으로 3·1독립운동을 추진한 경우는 홍천과 횡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기독교와 천도교가 연합하였다. 양양에서는 기독교와 유교가 연합하였다. 철원의 독검리와 이천의 경우에는 천도교와 유학자가 공동으로 독립운동을 추진하였다. 다만, 종교 간의 협력은 강원도 전역에 걸쳐 많지 않았다. 종교인의 주도적 활동과 함께 각 마을의 구장이 주도하는 시위도 있었는데, 이는 강원도나 산악지방과 같은 곳에서 구장의 지위가 다른 지방보다 높았기 때문이었다.



계승하자 삼일정신! 우리들의 선열은 이렇게 가셨다!
(양양문화원 사무국장 제공, 양구에서 수집)

지역별 그리스도인들의 활동

기독교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한 지역은 철원·인제·홍천·횡성·강릉·양양·통천 등이었고 수부도시였던 춘천에서는 춘천읍 장터 천도교인과 장사꾼 수십 명 시위(3.28)를 한 데 이어 4월 23일 세브란스전문학교 졸업생 이병천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선포문과 국민대회취지서 가지고 춘천 도착, 춘천읍 예배당에서 자주 철야 회의하며 계획했으나 탄로, 만세운동계획이 불발되었다.

철원에서는 독립선언서가 철원군내 배포(3.2~3)되자, 기독교측 청년·학생들이 중심이 된 500명이 군중이 철원군청에서 만세운동(3.10), 기독교인 중심의 군중 700명이 철원역에서 만세운동(3.11)을 하는 등 이후 4월 8일까지 네 차례 전개되었다.

인제지역에서는 인제군청에 근무하던 서병선(1895~1973)이 인제감리교회 전도사였다가 홍천감리교회로 자리를 옮긴 원익상의 소개로 3월 중순경 춘천감리교회 이병찬 목사와 김홍범 목사 그리고 정경운 권사를 통하여 독립선언문을 입수한 후 약 160명의 동지를 규합하여 인제보통학교 4년생 이성종·이종근, 졸업생 심한구 등과 협의하여 3월 29일 인제읍 장날에 만세운동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3월 27일 밤에 계획이 탄로나 주동자 서병선, 이성종, 이종근, 심한구 등은 춘천형무소에서 6개월간의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홍천에서는 3월 말경 감리교회는 홍천읍의 주민을 계몽하고 천도교회는 북방면의 주민 동원을 책임지면서 기독교인과 천도교인 주도로 700명이 군청과 면사무소 만세운동(4.1)을 하였고 이후 4월 11일까지 네 차례로 전개하였다. 특히, 4월 1일 만세운동 때 감리교회에서는 김기현(金基鉉)·김수완(金壽完, 일명 東鑑)·차봉환(車奉煥, 일명 準弘)·임윤항(林潤恒, 일명 準弘)·이홍근(李洪根)·송경섭(宋景燮)·장일규(張逸奎) 등이 협의하여 태극기를 만들

고, 또 감리교회의 교인을 통하여 민중을 계몽하였다. 이때 감리교인의 활동을 지도하고 있던 사람은 홍천교회의 원익상(元翊常) 전도사였다.

횡성에서는 천도교인과 기독교인 그리고 횡성청년회 주도 1,300명 장터와 군청, 면사무소 등지에서 만세운동(4.1)을 하였고, 횡성읍의 청년 윤태환(尹泰煥)이 주동급에 가담하였고, 감리교회의 정해경(鄭海景)과 탁영재 등이 역시 힘을 모았다. 당시 횡성읍내에는 감리교회가 있어서 활동이 평소에 큰 것은 아니었으나 청년들은 횡성청년회를 조직하여 횡성보통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있었다.

강릉에서는 4월 2일, 강릉중앙감리교회 교인들과 보통학교 졸업생들이 주축이 되어 장터에 나가 만세를 불렀다. 이 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강릉교회 중앙감리목사였던 안경록과 그를 중심으로 조직된 '강릉청년회' 회원들이었다. 4월 7일 만세운동은 교회 청년회 중심의 만세운동이었다. 이날의 거사는 강릉공립보통학교의 졸업생들과 감리교회 청년들로 구성되었던 강릉청년회를 주체로 최선호(崔善浩)·정식화(鄭軾和)가 중심이 되어 하였다.

양양의 만세운동 계획은 3월 말 유교와 기독교계 지도자들에 의해 양분 추진되어 양양 장날 유교와 기독교계 주도의 군중 4,000명이 양양경찰서와 군청 주변에서 만세운동(4.4)을 전개하였고 그 후 5월 9일까지 9차례 강원도내에서 가장 많은 군중이 참여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북한지역인 통천군에서도 독립선언서가 천도교(3.3)와 감리교(3.20)에 전달 배포되었다. 장전리 감리교회 주도 기독교인 20여 명의 만세운동(4.2)을 비롯하여 4월 9일까지 다섯 차례 거행되었다.

여성 그리스도인들의 역할

강원지역에는 기독교에서 특히 여성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기도 하였다. 특히 철원·통천·양양 등에서는 여성들의 운동 또한 활발하게 일어났다. 철원읍의 교회목사 박연서는 교회의 학생·교사·전도사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만세운동을 추진하게 만들었다. 일반인을 이끌고 만세운동을 벌인 것은 전도부인 박진근, 정의학교 교사 엄재형·김경순과 개성 호수돈여학교 동창 이각경·이소희·청년 이배근·이학수·박창근·윤상식·송희선 등이었다. 이 중에서 박진근·김경순·이각경·이소희 4명이 여성이었다.

양양군에서는 조화벽이 만세운동을 전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조화벽은 양양감리교회 조영순 전도사의 딸이자 유관순의 오빠 유우석의 부인이다. 3월 말경 양양을 찾아와 교회 청년들



올케 조화벽과 시누이 유관순 모습

에게 독립선언서를 전달하였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 조화벽의 독립선언서 전달로 교회 청년들은 4월 4일 군중을 이끌며 만세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이렇듯 당시 강원도의 그리스도인들은 21개 군 가운데 7개 군에서 천도교인·유림들과 연합하여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여러 목사들과 전도사들 그리고 믿음으로 무장한 남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이외에도 양양에 현산학교, 홍천에 모곡학교 및 교회를 세우고 주님사랑과 나라사랑을 실천한 한서 남궁억(1863~1939) 선생의 헌신적인 역할도 3·1만세운동 당시와 그 이후의 민족의식 고취에 영향을 미쳤다.



글. 김동정 장로
(신성교회, 가톨릭관동대 교수)

춘천 1기 전도사관학교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요즘은 전도의 문을 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전도훈련을 받아도 전도 대상자를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현실의 벽이 높아도 그리스도인은 전도의 사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급변하는 시대의 눈높이에 맞는 전도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사관학교는 당진동일교회 이수훈목사님이 고 김준곤목사님께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는 복음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순수 복음운동인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으면서 이 시대의 눈높이에 맞는 전도전략을 갖고 민족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세운 전도학교입니다. 그동안의 오랜 전도의 경험과 아울러 최신의 이론을 종합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여 다시 한번 조국의 교회를 살리기 위한 목적을 갖고 설립되었습니다. 이미 임상적으로 당진에서 시작이 되었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춘천에서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관학교 교육목표

1. 훈련을 통해 “10명의 전도꾼이 300명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훈련한다.
2. 훈련 후 조직적 관리가 부족한 기존 전도훈련과 차별화하여 훈련생들을 중아 통제로 목표 달성때까지 관리한다.
3. 교회내에서 실제적인 전도중심 조직을 담임목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시스템화 한다.

전도사관학교 훈련특징

1. 첨단 과학적 전도방법을 적용한다.(스마트 전도법 교육)
2. 군대조직과 같은 조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도 조직을 만들어 운용

전도사관학교는 단순한 전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도꾼을 양성하여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목양의 동역자가 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전도사관학교는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도 전도의 필수 요소인 기도와 성령, 공감과 경청, 치유와 회복을 통해 실제 전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도훈련을 받아도 전도 대상자를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전도사관학교에서는 훈련을 받는 동안 이미 전도 대상자가 기다리고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훈련을 마치면 자격증으로 감정코치 지도사, 상담심리사, SQ 지도사, SQ 진로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추후 관리체계까지 이어지며 평생 전도 동역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전도훈련을 받아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면 다시 한번 조국교회에 부흥이 올 것입니다. 조국 교회가 사는 길이 나라가 사는 길이며, 민족이 사는 길이며, 세계선교를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춘천에서도 다시금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소망하며 춘천전도사관학교를 개최합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하며 중앙에서 전도실적을 관리하고 매일 담임목사가 현황을 확인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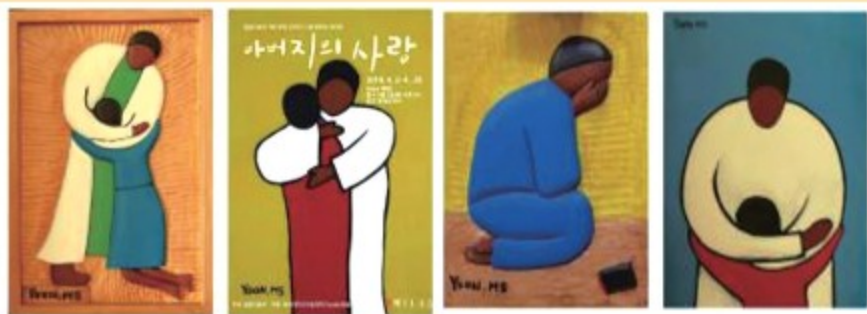
3. 목표(개인별 300명 전도풀 만들기, 100명 복음제시, 10명 교회 정착)를 달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전도사관학교 기대효과

1. 훈련생들의 전국 조직화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 및 1만명 전도꾼 양성
2. 개인별 전도 목표 달성을 통해 교회 전도 부흥 달성
3. 전도 중심조직의 상시 보유와 관리로 전도하는 교회 분위기 조성

글. 이병철 목사
(주향교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부본부장)

갤러리 오르 2019년 가정의 달 초대전 윤문선 목사 “아버지의 사랑”



- ◆기간 : 2019년 5월 1일 ~ 30일까지
- ◆장소 : 갤러리 오르
- ◆주소 : 춘천시 석사동 스무썬 1길 16 (한울섬김교회 2층)

문의: 관장 노영식 권사 010-8477-3983

2019 전도 사관학교

일시 추후공지

강사 이수훈 목사 (당진동일교회)
김진호 소장 (SQ글로벌연구소)
박한규 박사 (통전치유상담연구소)

장소 주향교회

주향교회
대안연구소
성모회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87차 춘천모임 - 2019년 4월 15일/주향교회

“영광을 보리라! (미사마 40:3~5)”

강사: 이규 목사(신촌아름다운교회)

좌우 동서 나뉘어 전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를 주소서

2011년, 우리 교회와 청년들은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얻은 결론은, 첫 번째, 통일은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한계치를 뛰어넘는 일이라는 것과, 두 번째, 남한의 교회 상태가 참된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이 문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금식과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대학생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이 통일되려면 이런 나뉘어 전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욕심과 탐욕을 제거하지 않은 채, 과연 북한 2500만을 품어 낼 수 있을까? 통일되기 전에 먼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변화가 있어야만 통일한국이 의미가 있을 거 같습니다.”

8차례 기도하며 걸었던 국토대장정

그때 얻은 아이디어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차례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며 걷는 국토대장정을 진행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노회를 했던 장소인 부산해운대교회와, 손양원 목사님께서 순교하신 여수애양원교회에서 출발하는 22박 23일 일정, 4년 전부터 시작한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임진각까지 11일간 일정을 기도하며 걷는 행진을 했습니다. 북한정부수립 70주년인 작년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만에 성전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70년을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청년들이 릴레이로 금식 기도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팀이 임진각에 들어가기 직전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진짜 이루어지네 하면서 가슴이 부풀어 올랐었습니다. 또 관문점에서 남북 왕래하는 장면을 보면서 청년들은 진짜 만나는데요 하면서 서로 카톡을 보내며 난리가 났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통일부에 제안서 하나를 냈습니다. 내년에는 서울 광화문에서부터 평양 김일성 광장까지 우리가 걸으며 기도하고 싶다는 제안서입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예배하고 출발하면, 4km 거리인 임진각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청년 걸음으로 45분이면 도착합니다. 계속 걸어가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예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동안 행진을 하면 8번이 막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도착한 자유의 다리에서, 주님! 이번에도 안 열어 주셨군요, 하며, 통일의 문을 열어 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해왔습니다.

니다. 지난해가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올해도 또 할 것입니다. 휴전선을 따라서 8월 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임진각까지 걸어가면서 청년들과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오늘 본문은 총 3절인데, 원어로 한 문단이며, 5절은 결론입니다. 구성은 5절이 되기 전에 4절이 일어나고, 4절이 되기 전에 3절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5절 결론에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고,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보겠다고 했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실질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훗날 700년 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수많은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지는 결론을 우리가 희망으로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영광이 나타나고” 라는,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지게 되었다” 라는 수동태입니다. 인위적이고 자위적인 어떠한 것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만이 하실 수 독점적인 사건입니다. 이 역사를 하시기 전에 전제 조건인 3절과 4절이 있어야만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파트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파트를 하셔서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파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파트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호와와 길을 예비하라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소리가 살리는 소리이고 역사를 오게 하는 소리입니다. 소리의 내용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와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입니다. 이 두 문장은 병행된 거 같지만 and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미사마르” 라는 말인데, 직역하면 “입으로부터” 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양들과 염소들은 길을 따라 대거 이동합니다. 어떤 길입니까? 목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이 양들의 길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와 길을 예비하라” 라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예비하라” 라는 말은 원어 동사가 “파나” 인데, 명사가 되면 “얼굴” 이라는 파님이 됩니다. “예비한다” 라는 말은 주님의 얼굴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그분 앞에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다음에,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

탄케 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막은, 사하라 사막이란 개념이 아니라 상인들이 지나 다니는 땅인데, 도저히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 넘어갈 수가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물을 준비해야 하고 짐승도 준비해야 되고, 상단을 조직해서 한꺼번에 가야만 이 길을 넘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또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합니다. “평탄케 하라” 라는 “라샤르” 입니다. 능동 강조 형태인데요. “라샤르” 는 “엄청나게 힘을 써서 이것을 했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길들은 돌들로 수평을 만들며 길을 만들어 갑니다. 이 내용은 엄청난 노동과 수고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가는 길이 어렵더라도 너의 의지를 동원해서 이 길을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는 4개의 문장이 나옵니다. “골짜기마다 돌우어 진다” 라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골짜기를 돌우어지게 하는 기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의지를 동원해서 낮아지게 되고,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서 왕의 대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홀로 영광을 멋있게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야 될 것은 통일이 오게 하는 일을 위해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해야 할 것은 철저한 회개운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서고 있는 것들, 사람들은 모르지만 위선적인 것들, 높은 교만한 마음들 또 우울한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씻어져야 되고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되는 성결의 역사,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는 일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통일에 대한 시기나 어떤 방식인지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은 그분의 파트입니다. 그분이 홀로 영광을 멋있게 받으셔야 합니다. 누구도 거기에 끼어서는 안 됩니다. 드라마틱하게 그분이 하시도록 맡겨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연출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우리가 할 것은 여기에서 우리 얼굴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 사막의 길을 연합해서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다 맡겨 드리고 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 이은정 사무국장

어 퀘스천 오브 페이스 A Question of Faith



찬양사역을 꿈꾸며 음반을 준비하는 미셸이 선천성 심장병으로 쓰러진다. 딸의 장래에 희망을 건 아버지는 심장 이식을 해 줄 사람을 애타게 찾게 된다.

교회중축문제로 관계자를 만나야 하는 데이비드 뉴먼 목사는 아들을 농구시합에 데려다주기로 한 약속 때문에 전전긍긍한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케이트에게 대학에 보내야 하는 딸 마리아가 있는데 운전 중에 문자를 하는 버릇 때문에 걱정이다.

결국 뉴먼 목사는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운전 중 문자를 하던 마리아는 결국 그 아들을 치게 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고, 미셸에게 그 심장을 이식해 주게 된다.

이렇게 여러 가정의 상황과 사건들이 한 교회 안에 수렴되어 믿음의 진정한 문제에 대해 저마다 한번쯤 생각해 하게 만든다.

이 영화는 은혜로운 찬양을 중심으로 한 교회를 이루

어가는 가정들의 여러 모습을 담고 있다. 특히 운전 사고에 대한 청소년의 법적 책임을 다루는 법정의 판결과 용서라는 미덕 사이의 갈등을 주제로 이끄는 이 영화는 오늘날 미국사회의 한 단면을 보면서도 우리나라와도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는 신앙의 문제를 들여다보게 하여 흥미롭다.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족들이 저마다의 책임과 애정을 돌아보며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러한 갈등 속에 어떻게 용서를 빌며 다른 사람의 선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또 어떻게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시 점검해 줄 수 있게 한다.

케반 오토 감독에 수많은 영화에 출연한 중견 흑인배우 리처드 T 존스가 데이비드 목사 역으로 열연했다. 러닝타임 1시간 40분

글. 김춘배 화백

건강칼럼

우울증

6명중 한명은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우울증은 매우 흔한 병이다. 40-50대에서 발병률이 높고 여성에서 2배 많이 걸린다. 최근엔 청소년이나 노인층에서 우울증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우울증은 치료하지 않는 경우 수개월에서 수년씩 지속될 수 있다. 사회적 수행능력의 저하로 일의 능력이 떨어지고 학업이나 직업실패, 가족 및 대인관계 악화, 알코올이나 약물 의존, 신체질환 악화, 자살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

일상생활에서 상황에 따른 반응으로 나타나는 우울감은 기분전환을 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정상수준으로 좋아지게 된다. 그러나 우울증은 정상반응이 아니라 치료하지 않으면 몇 달, 몇 년이라도 지속되고,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우며, 최악의 경우 자살에 이르게 될 정도로 심한 증상이 지속된다. 우울증이 지속되면 생각하는 방식과 세상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비틀린다. 모든 일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이런 불행이 평생 지속되고, 온 세상이 모두 부정적으로 보인다. 우울증상은 기본적으로 우울하고 에너지가 저하되고 슬픔과 집중력의 저하를 동반하나 연령과 성에 따라 독특하게 표현되기도 한다. 소아의 경우 아이가 산만해지거나,

학교성적이 떨어지고 등교를 거부하고, 배나 머리가 아프다는 등의 다양한 신체증상을 호소하거나, 부모에 대한 지나친 집착 등의 중세가 나타날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부모나 교사에 대한 반항이나 사회에 불평불만이 높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중년기 여성의 갱년기 우울증의 경우 주부건강증으로 알려진 기억력의 저하를 호소하며, 자식이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독립해나간 허탈감을 견디지 못하는 빈둥지 증후군, 초조감과 인생의 공허감, 배우자에 대한 의심 등을 주로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 남성은 은퇴나 실직 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변화와 겹치는 경우 그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한편 노년기의 우울증은 암이나 다른 심각한 질환에 걸린 것이 아닌지 불안, 초조해 하며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기도 한다. 집중력과 기억력의 저하를 호소하는데 정도가 심한 경우 치매로 오인되기도 한다. 한편 중년 이후부터 다양한 신체질환을 함께 앓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게 된다. 우울증은 신체질환이나 치료를 위한 약물(고혈압약 등 심혈관계 약물, 스테로이드 호르몬, 피임약, 식욕억제제, 항생제, 진통소염제, 항파킨슨약물, 항

경련제 등)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상이 있을 때 이런 신체질환의 유무와 함께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어떤 것인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알려주는 것이 옳바르고 빠른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대부분의 우울증은 치료가 잘 되는 병이다. 우울증의 약물치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치료를 지연시키고 방해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치료하지 않거나 충분히 치료받지 않아 우울증이 완전히 낫지 않거나 만성적으로 지속된다. 일반적으로 우울증을 충분한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증상이 심해지고 빨리 낫지 않으며 재발하는 간격도 짧아진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6개월에서 13개월간 우울증상이 지속된다. 따라서 적절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함으로써 우울 증상의 완전한 소실과 재발 방지에 도달할 수 있다.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3개월 안에 호전되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유지치료가 필요하다. 3개월 안에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대부분 재발을 한다. 유지치료 중에도 치료가 중단되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우울증의 치료는 의사가 일방적으로 하고 환자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좀 더 나은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다. 우울증은 자신이 약해서 생긴 병이 아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중대한 의사 결정은 병이 나은 후로 연기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활동에 참가하면 도움이 된다.

우울증 환자의 가족도 많은 고통을 겪는다. 일단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곤란을 겪는 수가 많다. 특히 자살을 기도했던 환자의 가족은 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된 후에도 항상 불안하고 재발의 두려움을 느낀다. 환자 가족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간을 가지고 격려하며 도와주면 분명히 낫는 병임을 명심한다. 증상에 대해 비난하지 않는다. 환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들어주고 이해, 공감을 하되 선부터 충고는 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를 권하되 조급하게 강요하지 않는다. 자살에 대해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의사에게 알린다. 치료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약을 잘 먹도록 돕는다.

글. 이종성
(사랑정신건강의학과원장)

강원지역 이단세미나

강원지역 이단세미나는 총회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위원장 이종철목사) 주최로 이단 및 사이비를 구별하고 목회자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세미나이다. 이번 세미나는 4월 18일(목) 온누리교회(김창환 목사)에서 개최됐다.

올해를 기점으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성장이 꺾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총회이단대책세미나에서 신현욱 목사가 “지난해까지 신천지 신도 수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교주 이만희의 건강 문제와 내부 혼란으로 올해 또는 내년을 기점으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여 관심이 주목되었다. 118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이단대책세미나에서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이덕술 목사(예수사랑교회)와 구리이단상담소장 신현욱 목사(구리초대교회)가 등단해 각각 ‘안상홍하나님의교회 세계관과 구원론 비판’ ‘신천지의 포교방법과 미혹교리’를 주제로 강론했다.

‘신천지의 포교방법과 미혹교리’를 “교주형 이단들이 반드시 들고 나오는 것이 바로 비유물이다”고 말했다. 교주형 이단들은 성경 예언에 실상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있었던 사실을 성경 예언에 맞추는 것도 아닌, 있었던 사실도 왜곡하고 성경 예언까지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여 억지로 꿰어 맞춘다는 것

이다. 그러면서 “신천지 역시 ‘비유물’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히 포장해서 성경의 예언을 보는 눈을 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시록을 구속의 역사로 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는 계시록을 비유로 본다”면서, 특히 “신천지는 계시록 시대에 이만희가 계시록을 풀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조작하는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신천지의 포교 방법에 대해 첫째, 복음방 혹은 센터 초등 과정에서 비유물을 통한 잘못된 설계 도면을 주입식으로 세뇌, 둘째, 그 도면대로 만들어진 계시록의 거짓된 실상이라고 할 수 있는 센터로 인도, 셋째, 예언과 성취 비유와 실상을 짝 맞추듯 하여 계시록 등 예언서를 자주 접하지 못한 성도들 미혹, 이와 같은 단계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하나님의 교회(안중희)의 세계관과 구원론 비판’ 강의를 한 이덕술 목사는 “안중희가 인터넷 홍보를 비롯해 문화행사 사회봉사 등을 벌이며 포교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한국교회가 안중희의 홍보자료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성경적으로 바른 교육 실시, 안중희 진리 5단계에 대한 반증 교육 강화, 정기적인 이단대책 세미나 개최 등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단을 대처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두 말 것도 없이 예방이다. 이단 집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길은 이단의 교리와 행태를 잘 분별하여 피해를 입지 않는

예방만이 최선이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이단 집단은 200여 단체로 파악되고 있으며, 자칭 재림주만 4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이단에 미혹된 신도 수가 200만 명에 이른다는 말한다. 단순한 수치지만 교회성장과 비교해 볼 때 이단사이비의 신도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단의 정통교회를 향한 무모한 도전은 단순히 한국교회만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대학가를 비롯하여 맨투맨으로 크리스천 직장인까지 겨냥하고 있다. 심지어 국내의 이단 집단들은 해외까지 지경을 확대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단에 대한 폐해는 단순히 이단에 가입한 신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해체는 물론 이요, 사회 문제, 그리고 국제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 예방은 한국교회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중요한 교육이다. 교회는 물론이요, 성도들의 삶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이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단예방주사’를 펼치며 이를 계기로 좁게는 강원지역과 넓게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히 이단으로부터 온전히 보호하는 기회가 되어야겠다.

온누리교회 제공

사례: (지난 5월 6일, 춘천기독교연합회 이단상담실 김지한 목사(호산나교회)와 상담 요청을 한 강원대 2학년 학생과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Q 신천지는 어떻게 접근했나요?

A 캠퍼스를 걷고 있었는데, 한 남학생이 잠깐 대화를 하자고 말을 걸었습니다. 자신은 강촌 송곡대 학생(김*목)이라고 했습니다. 요리사가 꿈인데, 다른 사람 음식에 대한 경험담을 듣고 싶고, 요리에 대한 감정들에 대해 이야기해주면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거 같다며, 핸드폰 번호를 물었습니다. (지뿐만이 아니라 강원대 내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핸드폰 번호를 묻는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저는 요리에 대해 몰라서 이야기 해줄게 없다고 했더니, 맛있게 먹었던 요리에 대해 이야기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알려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톱이 시작되었는데, 며칠 후 이 친구가 밥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그때는 복학생이기도 하고 아는 학생도 얼마 없었기 때문에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강원대 후문 돈까스 집에서 만났습니다. 식당에서 돈까스를 먹고 있는데, 내 뒤로부터 한 사람이 와서 이 친구한테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자기네 대학교에서 심리 상담을 해준 강사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형 힘든 거 혹시 있어요? 형도 저처럼 저 강사님한테 심리 상담 받아 보는 게 어때요?”라고 물어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후 그 강사라는 형(이*우, 성균관대 나왔고, 춘천에서 일한다고 했다.)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 형은 왜 나를 만나고자 했냐고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만나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담해줄 텐데, 자기는 공적 기관에 속한 상담가라서 원칙상 밖에서 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네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 보니 힘든 거 같은데, 비밀로 상담을 해주겠다. 그러니 그 누구에게라도 이야기하면 안된다, 네가 이야기 하면 내가 난처해지니까 비밀로 꼭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나무와 산 그림을 그리는 상담부터 시작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성경공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카페에서 하다가, 제가 사는 원룸으로 옮겨서 하게 되었습니다. 3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주 3~4일 저녁 시간에 했습니다.

Q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를 느끼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처음에는 성경공부를 하면서 호기심이 생겨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월 7일부터 40주간 하는 센터 교육이 있으니 면접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면접하러 갔는데, 센터 교육은 월화목금,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12시 반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장소는 퇴계로에 있는데, 예전에 신천지에서 쓰던 건물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신천지란 말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는 각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 자신들은 정해진 교단이 없다고 했습니다. 소속이 불분명하다는 말도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 선교 단체에서 신천지 구분 방법으로 알려준 내용 중에, 학교 강당 같은 곳에서 칠판으로 교육한다고 들은 적이 있었는데, 자신들은 칠판으로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의심이 계속 꼬리를 물게 되어서, 신천지를 검색을 하게 되었고, 춘천기독교연합회 이단상담소도 검색하여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받고 보니, 정말 큰 일 날 뻔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Q 이와 관련해서 대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학교 내에서 설문조사(특히 학과 과제 설문조사라고 합니다.)나 심리 상담이라고 하며 접근하여 연락처를 받고 계속 연락을 하는데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신천지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서 의심하게 되었고 빨리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받고 보니 신천지에 빠져 학업도 중단하고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 많이 있던데, 잘 분별하면 좋겠습니다.

춘천시기독교사회복지협회 창립예배



지난 4월 12일 오전11시에 강원재활원(홍기종 원장)에서는 춘천시내 기독교사회복지관 임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춘천시기독교사회복지협회 창립예배를 드렸다. 춘천시기독교사회복지협회는 지난해 10월 성시주간에 열린 춘천시선교대회 예배를 섬기기 위해 모였던 복지단체 임직원들이 모임을 지속하면서 창립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본 협회는 춘천시사회운동본부(박인관 이사장) 산하기관으로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위해 연합하게 된다. 이날 예배에는 박재호 관장(북부노인복지관)의 사회, 박인관 이사장의 말씀선포, 김한호 목사(동부교회) 축도로 드려졌다. 2부에서는 임원선출을 위한 회의가 진행되어, 회장에는 홍기종 원장(강원재활원), 부회장은 최중범 관장(강원도 장애인복지관), 총무는 박재호 관장(북부노인복지관), 간사는 박란이 관장(남부노인복지관)이 선출되었다. 협의회는 매월 1회 정기모임(두번째 금요일 정오)을 갖기로 정했는데, 이번 달에는 5월 10일(금) 정오에 남부노인복지관(박란이 관장)에서 갖는다. 올해 10월 성시주간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행사를 기관 연합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30주년 기념식 및 행사

1989년 2월 28일에 개관한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최중범 관장)이 개관 30주년을 맞아 기념식 및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4월 15일(월) 오후3시에는 춘천중앙감리교회에서 “하트브라스앙상블” 공연으로 기념음악회가 있었고, 4월 17일(수) 오전10시 CGV춘천명동점에서 영화상영과 토크콘서트가 있었다. 4월 18일(목) 오전10시 스키컨벤션웨딩홀 2층에서 기념식 및 작품전시회를 가졌다.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19년부터 춘천중앙감리교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 부활절 계란 나눔 행사



2019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이수형 이사장)는 부활절 계란 나눔 행사를 4월 19일(금) 오전11시에 신성감리교회(박상철 목사)에서 지역 군목과 군중, 민간 군선교 사역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졌다. 이날은 춘천내 교회의 후원으로 2만 여개의 계란이 전달해 부활의 기쁨을 나누었다.

2019 부활절 연합예배



2019 부활절 연합예배가 4월 21일(주일) 오후2시 30분에 신성감리교회(박상철 담임목사)에서 춘천기독교연합회(김종익 회장) 주관으로 드려졌다. 1부는 신성감리교회 찬양단의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되었다. 수석부이사장 오의석 목사(순복음춘천교회)의 사회, 부회장 심의섭 장로(춘천중앙감리교회)의 대표기도, 부회장 조정일 장로(광장감리교회)의 “마태 28:10” 성경봉독이 있었다. 이어 신성감리교회 찬양대의 특별찬양이 있는 후, 회장 김종익 목사(광명장로교회)의 인사 및 강사소개가 있었다. 이날 강사인 임석순 목사(한국중앙장로교회)는 “부활 생명의 사람들이 갈릴리로 가라”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서기 최재훈 목사(꿈꾸는순복음교회)의 인도로 “남북의 복음평화통일 위하여-순학규 목사(석사감리교회),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조용아 목사(성광장로교회), 춘천성시화와 발전을 위해-장기동 목사(중앙성결교회), CBS 신사옥 건축과 선교센터의 건축을 위해-치송호 목사(은평장로교회)”가 대표로 기도했다. 중경회장 조영호 목사(춘천그리스도교회)의 헌금기도에 이어, 이경숙 사모(순복음열린교회)의 특송이 있었다. 축사에는 김진태 국회의원, 이재수 춘천시장, 이원규 시의회 의장이 맡았고, 총무 김수일 목사의 광고가 있는 후, 직전회장 신재원 목사의 축도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마쳤다.

춘천중앙교회 광장감리교회 원로목사 추대예배



4월 28일(주일) 오후4시에 춘천중앙교회에서는 권오서 원로목사 추대예배가 드려졌다. 권오서 원로목사는 1988년 춘천중앙교회에 부임하여 32년간 사역하셨다. 이날 성역을 마무리하는 예배에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묵묵히 사명을 따라 교회를 섬겨왔던 스토리로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제는 한국교회와 강원 목회자들의 버팀목으로 국내외 목회 활동등 더 넓은 자리로 나아감을 모두가 찬하하였다. 춘천중앙교회 27대 담임목사에는 캐나다에서 사역을 하신 심성수 목사께서 취임하였다. 심성수 담임목사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부임하여, 권오서 원로목사와 함께 교회의 전반 사역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 121년의 역사를 가진 춘천중앙교회는 한국교회에 목회 위임에 대한 본을 보여주었다. 같은 날 동 시각

에 광장감리교회에서도 원기배 원로목사 추대와 황종윤 목사 취임식 예배가 있었다.

춘천기독교연합회, 강원산불 피해지역 성금전달



지난 5월 2일에 춘천기독교연합회 연합회장 김종익 목사와 임원들은 강원도 고성 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천교회와 극동방송, 농아인교회를 방문하여 춘천지역 교회에서 모금된 후원 성금을 전달했다.

월드비전 “강원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치유와 회복 콘서트”

2019년 5월 7일(화) 저녁7시에 석사교회(손학균 담임목사)에서는 한국찬양사역자연합회, 춘천석사교회 주최, 월드비전 강원지역본부 주관으로 강원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치유와 회복 콘서트를 열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양사역자 김석균, 최인혁, 동방현주, 다윗과 요나단, 시와 그림 등 한국찬양사역자연합회 회원들이 참여하였다.

춘천홀리클럽 여성위원회 발족

춘천홀리클럽 여성위원회가 4월 1일(월) 저녁 모임을 갖고 정식 발족하였다. 각 영역에서 활동하는 여성위원들이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모임을 만들어 갔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역을 논의하며 감당해갈 여성 홀리클럽의 역할이 기대된다.

[순복음춘천교회] 중국목회자 리더 초청 섬김



순복음춘천교회(담임 이수형 목사)가 중국 삼자교회와 가정교회 목회자, 리더 36명을 초청해 지난 4월 8~13일 일주일 동안 한국교회 목회현장과 문화 체험 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초청은 중국 목회자, 리더들이 한국교회 목회현장 탐방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받아 중국 사역을 준비하는데 있고, 중국 목회자, 리더의 회복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며, 순복음춘천교회와 중국 목회자, 리더의 사역 교류에 목적이 있다. 이번 목회현장 방문을 통해 한국교회의 뜨거운 기도 열기를 직접 체험하였으며, 말씀과 기도의 영적능력을 위하여, 중국 사역 및 복음화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했다. 또한, 받은 은혜와 도전을 서로 나누고, 중국에서 접목할 주요 목회사역 계획을 세우는 자체 워크샵과 간중, 기도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일정이 잘 진행되고 방문 일정동안 은혜의 간증이 전해졌다.(취재/명예기자 정종승)

하나원 교육생 종교 및 도시문화생활체험

탈북민 조기 정착을 돕는 '하나원 교육생 종교 및 도시문화생활체험' 이 지난 4월 13일(토) 순복음 춘천교회 본당 및 춘천지역에서 진행됐다. 종교 및 도시문화생활체험은 '탈북민 3개월 정착 교육 과정' 중 하나로 남한생활을 체험해 보는 사회 적응 교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한국 기독교탈북민정착지원협의회(이하 한정협)와 춘천기독교연합회 후원으로 순복음춘천교회는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날 순복음춘천교회 성도 29명이 봉사자로 자원해, 탈북민 종교 및 도시문화생활체험을 섬겼다. (취재/명예기자 정종승)

2019 사랑나눔 바자회

지역사회를 위해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순복음춘천교회(담임 이수형 목사)가 "2019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바자회"를 5월 4일(토) 개최하였다. 순복음춘천교회 사랑나눔 바자회는 2011년부터 시작하여 지역을 섬기고 선교를 감당



하고 있다. 이번 사랑나눔 바자회에서는 영아부에서부터 장년부까지 30여개의 부스를 설치하여 잔치국수, 비빔밥, 수수부꾸미, 닭꼬치, 건어물, 젓갈, 과일, 반찬, 팝콘, 커피, 생과일주스, 구운계란, 묵밥, 호박죽, 김치류, 솜사탕, 등 많은 먹거리와 유명 브랜드 협찬 의류, 구제 의류가 시중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으며 참석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며 교제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일 택시를 타고 오는 택시 테이를 진행하여 160여대의 택시를 이용하여 지역사회를 섬기는데 기여하였다. 택시기사에게는 전도지와 음료수를 전달하였다. 사

랑나눔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사용된다. (취재/명예기자 정종승)

[주향교회]

친선탁구대회 개최

주향교회(이병철 담임목사)와 사암교회(최상도 담임목사)는 지난 3월 31일(주일) 오후 2시 북부노인 복지관 탁구장에서 친선탁구대회를 개최했다. 단식과 복식 경기와 담임목회자 부부의 경기 등 그동안 갖고 있던 실력을 견주며, 친목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강원산불피해지역 요양원에 성금지원

주향교회(이병철 담임목사)는 강원산불로 피해로 전부 소실된 밀양교회(한기홍 목사)와 요양원인 달리다굴 홈케어에 성도들의 헌신으로 모금된 성금 전달하고, 속초농아인교회에는 만개 선물보따리 100여개를 전달했다.

취재 / 사진. 이은정 사무국장

행사안내

춘천목회자연합회 국내교회 탐방 및 역사기행

일시 : 2019년 5월 9일(목)~10일(금)
장소 : 충남 당진 및 아산
주최 : 춘천목회자연합회(010-8216-8291)

제10회 엘리엘찬양단 정기집회

일시 : 2019년 5월 18일(토) 오후 5시
장소 : 춘천안디옥교회 중예배실
강사 : 김선교 선교사(다윗의 열쇠 대표)
주최 : 엘리엘찬양단(010-6311-2454)

두란노아버지학교 춘천59기

일시 : 6월 1일(매주 토, 5회)
장소 : 순복음춘천교회
주최 : 두란노아버지학교(010-4238-1961)

동성애 법제화 저지를 위한 특별집회

일시 : 5월 26일(주일) 오후 2시30분
장소 : 성광장로교회
강사 : 기정희 선교사(베드로병원 원장)
대상 : 동성애의 실체를 알기 원하는 모든 분
주최 : 홀리클럽(010-8879-9033)

춘천교경협의회 부흥성회

일시 : 6월 23일(주일) 저녁 7시
장소 : 주향교회
강사 : 이수훈 목사(당진동일교회)
주최 : 춘천교경협의회(010-8290-9125)

춘천장로연합회 제4회 6.25 구국기도회

일시 : 6월 23일(주일) 오후 7시
장소 : 중앙감리교회
강사 : 권오서 원로목사
주최 : 춘천장로연합회(010-5373-8295)

홀리클럽 23주년 감사 선교대회

일시 : 6월 16일(주일) 오후 7시30분
장소 : 동부교회
강사 : 이호 목사
주최 : 홀리클럽(010-8879-9033)

90차 춘천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일시 : 6월 10일(월) 오후 7:15
강사 : 김모세선교사(평화한국)
주최 : 춘천주빌리(010-6254-3162)

주니어 주빌리 여름 통일캠프

일시 : 7월 29일(월)~8월 1일(목)
강사 : 안민 총장(고신대), 배민수 목사(서울영동교회), 마크 조(하와이 열방대학 동북아DTS 원장) 등
장소 : 백석대학교(천안)
주최 : 주빌리(010-6254-3162)

총인교회 직원모집

총인교회 관리집사

- ◆업무: 교회 관리 / 운전
- ◆시간: 면접 시 협의
- ◆급여: 면접 후 결정
- ◆제출: 이력서 지참 방문 (사전 연락)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인교회

문의: 033-242-4812
010-8939-0111

CBSi 영어성경공부

- ◆교재: CBSi 미국 초등부 교재
- ◆대상: 영어공부 원하는 성인(초교파)
- ◆시간: 매주 월 오전 10~12시
- ◆장소: 춘천나눔성결교회
- ◆회비: 월 2만원

문의: 010-9384-1099
(이현숙 권사)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2019
기도를 통한
무슬림
사랑

2019년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을 합니다. 무슬림들이 신앙생활에 가장 초점을 맞추는 '라마단'기간에 맞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임하도록 간구하는 전 세계적인 기도 운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30일 동안 무슬림을 위해 기도할 때, 무슬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운동 가운데 함께 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 기도운동 기간: 2019년 5월 6일(월) ~ 6월 4일(화)

▶ 기도운동 참여방법

기도책자를 구입 후 개인적, 소그룹, 새벽예배, 구역(목장)모임 등에서 매일마다 나와 있는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예 참여하시면 됩니다.

▶ 기도 책자 가격: 한 권당 2,500원

▶ 기도운동 참여문의: 010-9085-6590(권혁준 간사)

알려드립니다

알림 등록 문의 : 033)256-1260

춘천출리클럽 (출리클럽 정기기도회)

일시 : 매 박수달 셋째 주 화요일 오전 6:30
 장소 : 지도 목사님 또는 임원교회 순회 시행
 회비 : 현금으로 진행
<http://cafe.daum.net/ccholly>
 (춘천출리클럽)

춘천성시합창단 단원 수시모집

정기연습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장소 : 사랑감리교회
 문의 : 010.2529.6193(이기영 단무장)

춘천성시무용단 단원수시모집

정기연습 : 일주일에 두번 오전반, 저녁반
 장소 : 부안길 6번길 18
 문의 : 010.3180.5330(지도 김귀선)

춘천출리테오 사모합창단 모집

대상 : 목회자 사모, 연령제한 없음
 문의 : 010.6378.2261(지휘자)

교회음악 (지휘)스터디 모임

일시 : 매 금요일 오전 10~12시
 장소 : 효자동 주민센터(부안초 근처)
 시온피아노 교습소

철문산악회 (기동동아리)회원 모집

일시 : 매주 토요일 100대 명산 및 춘천분지
 중추 산행
 문의 : 010.8798.8732(정학수)
<http://cafe.daum.net/ccjmm>

교역자 축구선교회 모집 포이맨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장소 : 공자현 잔디구장
 문의 : 010.5372.6200(지용찬 목사)

목회자 축구 회원 모집

일시 : 월-토요일 매일 오전 6시

장소 : 공자현 축구장
 문의 : 010.5596.3702(홍무 최재영 목사)

한마음 탁구회

일시 : 매일 아침 7시30분
 장소 : 더즐거움탁구(후평1단지 시장 옆구)
 회비 : 월 4만원
 문의 : 010.4306.3818

함기도 선교회원 모집

대상 : 목회자 및 자녀와 성도
 장소 : 함기도선도관(백골관 앞)
 문의 : 010.3585.3620(이영규 목사)

행복재가 정기요양기관

방문요양, 육육(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65세 이상 치매, 중풍, 장애 등 요양보호사
 돌봄이 필요한 분
 문의 : 010.7757.4972

춘천일일선교합창단 단원모집

대상 : 찬양선교의 뜻이 있는 분
 일시 : 매주 화 저녁6:30
 문의 : 010.7390.0448 / 010.5685.5612

춘천출리클럽 정기기도회

일시 :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저녁7:15
 장소 : 주향교회
 문의 : 010-6254-3162

춘천동일광장기도회

일시 :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저녁8시
 장소 : 석교회 하천무대
 문의 : 010-8377-5373

예수전도단 화요일모임

일시 : 매주 화요일 저녁7시
 장소 : 공간나눔(석주로 128 지하1층)
 문의 : 010-5541-6952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춘천성시화운동을 위해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개인

가천출 김은주 경동출 고순덕 고정희 광해출 광 환
 국주출 권경애 권여림 권영자 권영진 권혁자 권혁재
 권현정 김경순 김경애 김경희 김관수 김교성 김금고
 김금란 김기영 김도희 김두철 김미선 김명희 김문수
 김미경 김미라 김미라 김미라 김미숙 김민선 김보경
 김복심김복자 김삼옥 김상화 김성수 김설아 김성국
 김성희 김세환 김수연 김수일 김숙희 김순덕 김순옥
 김순철 김순희 김영관 김영명 김영수 김영순 김영일
 김영태 김영희 김예은 김옥선 김옥선 김용배 김용기
 김원중 김은아 김은희 김정자 김정미 김정숙 김정애
 김정의 김정희 김종숙 김종국 김종익 김종현 김종희
 김주봉 김주혁 김지영 김준하 김태균 김학자 김현주
 김현철 김형욱 김혜란 김화본 나정희 남궁영남남궁자
 남준섭 남하은 노길자 노윤미 노정희 류현구 문현숙
 민경원 민병순 민병일 민병일 박 현 박갑숙 박건섭
 박갑화 박갑희 박노향 박남남 박동호 박동환 박민규
 박영관 박문순 박미선 박미자 박미정 박상준 박상혁
 박선옥 박소영 박소배 박애자 박영호 박옥화 박은경
 박은혜 박인관 박종일 박주환 박지인 박지혜 박지환
 박정범 박준자 박필성 박형익 박혜성 박 희 박희상
 방진선 배미정 배진철 배한나 백광일 서경숙 서요석
 서성진 서순옥 서연숙 서은아 서현애 석지현 성숙자
 성완경 성희숙 손병서 손인규 손원순 손학규 송갑수
 송미화 송수정 송영민 송정심 송창근 신건호 신경자
 신금호 신달호 신동경 신미연 신민선 신영선 신옥섭
 신옥자 신문수 신종길 심규향 안순연 안현아 안현주
 양봉남 양재순 양혜경 여금옥 엄근혜 엄기중 엄기홍
 엄혜란 여경구 연승훈 연정화 엄은희 오성남 오영명
 오송금 오송수 오영중 오영목 원명일 원선미 원예슬
 원유미 원화숙 원희정 유 근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영재 유용균 유재란 유정희 유정선 유정순 유정희
 유희자 유금숙 윤기춘 윤성자 윤애자 윤영기 윤은미
 윤은옥 윤정녀 윤정희 윤학범 윤용목 이가연 이광재
 이광필 이규현 이기환 이도현 이명숙 이명순 이무식
 이문희 이미숙 이미영 이병일 이병철 이봉연 이성도
 이성숙 이소영 이숙희 이순자 이승희 이연화 이연희
 이영규 이영문 이영준 이영진 이옥순 이원래 이원숙
 이원일 이문규 이문주 이문경 이인숙 이재근 이재선
 이정미 이종환 이종현 이주영 이지영 이지영 이지는
 이진주 이창주 이천희 이충훈 이태우 이하경 이현석
 이하아 이하란 이하목 이하민 이하희 임덕수 이하희
 임소희 임순희 임성용 임윤희 임인숙 임재철 임정용
 정기영 정동자 정소영 정지현 정진순 정창순 전윤배
 전정희 정계지 정국환 정규서 정영목 정복태 정복희
 정선순 정성희 정우진 정유민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선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종승 정주향 정지혜
 정진호 정지용 정현우 조경대 조경자 조남진 조돈산
 조상균 조성경 조소현 조영순 조영숙 조원순 조은비
 조정심 조종현 조진경 조현숙 조현호 조신자 지윤성
 지정훈 지재욱 재재관 천향호 최광우 최귀숙 최돈식
 최동규 최영기 최문수 최미혜 최민희 최선이 최선혜
 최선희 최성현 최순희 최승경 최승태 최승화 최원화
 최영순 최영희 최예선 최옥순 최윤영 최은숙 최은순
 최인숙 최재중 최정락 최종대 최종인 최종희 최종호
 하문옥 한영수 한순숙 한원순 한정순 한정연 한희현
 허순영 허 영 허인영 허정자 현연희 현재용 홍순복
 홍영숙 홍은숙 홍의표 홍인숙 홍은애 홍영기 홍혜림
 황금심 황기현 황병찬 황은주 황정숙 황태용

후원교회

강원침례교회 거성침례교회 그늘샘양묘교회
 금산교회 나눔성결교회 동신장로교회 사랑의교회
 사랑성결교회 새천교회 석사감리교회 소양재교회
 순복음영원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복교회 신성감리교회 아미교회 영마오교회
 예사랑교회 예수교회 옥산침례교회 은누리교회
 우두감리교회 주의교회 주향교회 주향장로교회
 축복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명성교회 춘천예당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은혜교회 춘천일신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춘천침례교회
 춘천평화교회 한빛교회 한울성결교회 화복교회
 협동교회 후평제일교회

후원기관 및 사업체

JDM 춘천와인신협 영광한의원 매일관광
 행복재가요양기관 건강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
 아가갤러리 베드로선교센터 월드비전 설곡산기도원

※명단에 누락이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연락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033-256-1260

춘천성시신문을 개별 배송 원하시면,
 이름과 주소를 문자로 남겨 주세요.
 (033-256-1260)

전 세대가 함께 떠나는 믿음의 여정



300여년 동안 전해진 위대한 유산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

주영훈 X 김효진 X 성대현 X 정범균 더빙 재능기부 참여! (2014.6.13)

6월 13일, 전국 극장 대개봉

대관(단체)문의 033.255.2001